휘발유 1리터로 580km 달린다!

전남대 BK21 사업단 경진대회서 전북대 메카트로닉스팀 우승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여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가운데 주어진 연료로 얼마나 멀리 달릴 수 있는지 경쟁을 펼치는 국저연비자동차경진대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전남대학교 BK21지역대학육성사업단(단장 조규종 교수)과 기계시스템공학부가 주관하며 2005년 8회째를 맞은 경진대회는 전국 대학, 고등학교에서 28개 팀이 참가했다.

평가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에 주어진 연료를 주입하고, 규정코스 10㎞를 달린 후 남은 연료를 측정해 연비를 계측한다.

최종평가 결과 전북대학교 메카트로닉스팀이 리터당 581.79㎞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주최측은 이전 신기록이 2004년 인천기능대학 퓨젼팀이 세운 484.7㎞였으나, 전북대 메카트로닉스팀과 전남대 AERO팀(503.48㎞) 등 2팀이 기록을 갱신했으며 연비가 가장 우수한 메카트로닉스팀이 신기록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BK21사업단과 기계시스템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연비를 개선시킨 자동차를 설계 제작함으로써 창의력과 기술력을 터득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매년 저연비 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14>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